

| | | | | |
|-------|-----------|-------|--------------------------|--------------------|
| 보도 일시 | 즉시 | 배포 일시 | 2022. 11.21.(월) 11:00 즉시 | |
| 담당 부서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책임자 | 심판관 | 이상우 (044-200-6112) |
| | 심판관 | 담당자 | 사무관 | 김원순 (044-200-6115) |
| | | | 주무관 | 이용희 (044-200-6116) |

제17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최우수상 목포해양대학교 ‘바다바라기’ 팀 수상 - 11월 18일 해양환경교육원에서 개최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해양환경교육원에서 11월 18일 개최한 ‘제17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에서 ‘군함 수호함·어선 제 707미래호 충돌사건’의 모의심판을 진행한 목포해양대학교 바다바라기(지도 교수 김득봉)이 최우수상인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모의심판을 통해 해양에 대한 안전의식 확산,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이해증진 및 연구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본선 결과는 최우수상에 목포해양대학교 ‘바다바라기’팀, 우수상에 목포해양대학교의 ‘탠인VDR’팀과 부경대학교의 ‘만선’팀이, 장려상에 한국해양대학교 ‘ALBATROSS’팀, 목포해양대학교의 ‘섣마루’팀과 ‘모비딕’팀이 각각 차지하였다.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300만원, 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200만원, 장려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참고

본선 참가팀 현황

| 수상명 | 팀 명 | 참가 인원 | 발표 사건명 |
|------|--------------------|--|-------------------------------------|
| 최우수상 | 바다바라기 | 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 학부 학생 11명 | 군함 수호함 · 어선 제707미래호 충돌사건 |
| 우수상 | 맨인VDR | 목포해양대학교 항해 및 해상운송학부 학생 10명 | 화물선 호라이즌호 · 컨테이너선 커리지호 충돌사건 |
| 우수상 | 만선 (滿船) |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 학부 학생 9명 | 선망어선 참참호와 석탄 운반선 탄탄호 충돌사건 |
| 장려상 | ALBATROSS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 및 항해융합학부 학생 11명 | 대왕갈치호와 예인선열 동진호· 동진13호 충돌 및 전복사건 |
| 장려상 | 섯마루 | 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 및 해상운송학부 학생 10명 | 컨테이너선 메리 스타호, 어선 제101성창호 충돌사건 |
| 장려상 | 모비딕 (Moby-Dick) | 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 학부 학생 9명 | 자동차운반선 골든어스호, 어선 배방호 충돌사건 |